

당뇨병환자의 성생활 관심과 성생활 만족정도

이강이* · 김금숙**

ABSTRACT

A Study on Sexual Concern and Sexual Satisfaction in Diabetic Patients

Lee, Kang Yi * · Kim, Keum Sook **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ersity

** : Instructor, Dep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and undertaken to examine the sexual concern and sexual satisfaction in diabetic pati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1997.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7 diabetic patients who visited to check their blood glucose level to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 one of hospitals located in Taejon city.

The questionnaires developed by Derogatis L. R. were used.

Data were analysed using percentages, means, F-test, done with the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n the question that If the patients want to be counselled about sexual need or not, male and female diabetic patients answered "moderate"(37 patients(48.1%).

2) In the question that if the patients are worry for their sexual life or not because of present illness, male and female diabetic patients answered "moderate"(27 patients(35.1%).

3) In the question that If the patients worried about sexual life, they wish to counsell for who, the majority of patients answered that want to counsell the medical doctor(49 patients(64.5%).

4) In the question that if a medical team is concerned about patient's sexual need or not, the patients usually answered negatively.

5) In the question of attitude about masturbation, male and female answered that they think it

* 대전 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doesn't matter if they maintain privacy.

6) In the question that if they use professional therapeutic method for sexual act or not, it is highly appeared not using(72 patients(93.5%).

7)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xual satisfaction and the sex, age, the period of disease, want to counselling about sexual need, the concern of the medical team about sexual need of the patie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 緒 論

1 연구의 필요성

현대간호는 과거의 질병중심으로부터 인간중심으로 방향전환을 해오면서 점차 인간과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중심의 간호를 중시하고 있다<김등, 1987>¹⁾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서 전 세계 인구중 약 5.5%의 환자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 국민의 약 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신, 1995>²⁾, 매년 당뇨병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이등, 1984)>³⁾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성적가치는 과거의 무지, 미신, 억제로부터 성의 즐거움(sexual pleasure)은 인간의 존재유무 및 인간발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생각될 만큼 성에 관한 인식이 재평가, 재정의 되고 있다<Haber, 1978>.⁴⁾

Sexuality란 남자로서의 삶 또는 여자로서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특성을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함축한다.

남자 또는 여자로서의 삶은 단순히 성행위라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신체상과 믿음체계, 태도, 타인과의 관계, 성적행위를 위한 신체적 구성요소의 통합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는 것이다<Hanak, 1992>.⁵⁾

인간의 성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또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이며, 또한 Maslow의 인간의 욕구단계중 그 강도와 중요성에 있어서도 타고 난 인간의 성적(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사회적 욕구(자존심의 욕구) 나아가 가장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인 당뇨병은 인슐린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결핍에 의해 초래되는 대사성 질환으로서 당뇨병을 가진 남자는 발기부전 사정불능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정체감과 자기 가치감, 자존심에 손상을 받게되며<Fairburn, Mcculloch & Wu, 1982>⁶⁾, 건강인보다 Impotenc가 2-5배 많다<Karacan, 1980 ; Whitehead etc, 1983>^{7) 8)} 고 하였다.

당뇨병을 가진 여자환자는 신경적 문제와 퇴행성 혈관문제로 인하여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kronsnick & Poddsky(1981)⁹⁾는 혈당치가 높을 때 질 감염과 성교통통이 있어 성적 만족감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Ellenberg(1977)¹⁰⁾는 여자환자와 건강한 여자사이에서 오르가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경험하는 성요구 및 성생활에 관한 소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Fairburn, Mcculloch & Wu(1982)⁶⁾는 당뇨병을 가진 남자 환자는 발기불능 또는 사정불능으로 여자환자보다 더 심각하게 성적 정체감 및 자기 가치감에 손상을 받는다고 보고 하였고, Beutler(1981)¹¹⁾와 Whitehead etc(1983)⁸⁾는 당뇨병이나 비뇨생식기 계통의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성생활은 육체적인 문제 보다는 질병에 대한 공포, 불안, 우울, 화냄등과 같은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더욱 더 장애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1998)¹²⁾의 연구에서 당뇨병환자들의 성생활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질수록 성행위 빈도가 많을수록 환자들의 성생활 만족정도가 높았

다.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성생활은 어떤 요인에 의해 장애를 받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형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평생을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할 당뇨병 환자들의 성생활은 인간으로서 일생에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당뇨병 환자들이 성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를 파악하고 또 성생활 만족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건강관리요원들로 하여금 당뇨병환자들의 성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여 성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간호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1998)¹²⁾의 당뇨병환자의 성생활 만족요인에 관한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 관심정도를 파악한다.
- 2)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 만족정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1) 당뇨병 환자 : 의사로부터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고 내과 외래에 식전, 식후 혈당검사와 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한 환자를 말한다.

2) 성생활 관심 : 본 연구 대상자가 성적대상자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요구 상담희망여부, 질병 때문에 성생활이 걱정되는지, 걱정될 때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적욕구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지, 성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방법을 이용하는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하였다.

3) 성생활 만족 : 성적 대상자와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내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성생활 만족으로 정의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대상자는 T시에 소재한 1개 부속병원에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당뇨병환자 전체에 일반화 하

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자가보고 형 도구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의 편견으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될 수 있다.

II. 문헌 고찰

간호에서 성문제가 취급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왔고, 무시되어 왔다. 인간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성은 큰 의미를 가진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인간성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 <조유향, 1994>¹³⁾.

인간의 성생활은 생리적 요인 보다는 심리, 사회적 영향을 더 받으며, 성생활은 성교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며, 자신을 수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이다 <Cooks & Bauer, 1980>¹⁴⁾.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개인의 성특질을 바탕으로 본능적인 성욕구인 부부간의 사랑을 성적 행위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사회적·성적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아실현을 하는 삶을 유지하게 된다.

성생활은 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계속 변화되는 내적 요소인 성 정체감(Sex Identity)에 의해 좌우되며, 개인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생활과 건강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기능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신체, 정신건강 및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성생활 만족은 부부 두사람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Saxton, 1969; White & Remay, 1982; 노유자, 1988>¹⁵⁾¹⁶⁾¹⁷⁾.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생활은 육체적 이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 유연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만족한 성생활과 행복한 결혼생활은 상관관계가

높다<Schenk, Pfrang & rausche, 1983: 이홍식, 1987>¹⁸⁾¹⁹⁾.

성생활은 여성,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감의 일부인 신체상의 영향을 받는다. 신체상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상을 말하며 자아개념의 일부분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관련된다. 또한 신체상은 개인의 성격, 가치관,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의 내면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신체부분을 개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체상과 자아개념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Garde & Lunde, 1984; Olsen, 1967; Roberts, 1978>²⁰⁾²¹⁾²²⁾.

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욕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Mecloski, 1976)>²³⁾.

이러한 태도들은 사회화의 결과이며 부모에 의해서 영향받은 태도와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여부도 달라진다<Rubin, 1965>²⁴⁾.

Atharisation과 shaver(1971)²⁵⁾는 성태도는 크게 보수적이거나 개방적인 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는 성기능에 대한 예언타당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Mosby와 Greenberg(1969)²⁶⁾ 및 Derogatis(1979)²⁷⁾는 개인의 성태도는 일정한 시점에서 볼 때에 보수성과 개방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젊고 활력있어 보이며 보수적인 사람들은 약간 침울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며 성행위에 관해 죄악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건강 관리인들은 만성질환자의 성생활에 대하여 임상 또는 연구면에서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Zilbergeld(1970)²⁸⁾는 만성질환자의 성생활에 대해 건강관리인들이 관심이 적은 이유를 첫째, 만성질환자가 대부분 노인들이므로 노인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성생활은 질병회복이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셋째, 성기능 부전이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 반응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질병으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넷째, 환자들의 성생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건강관리인들이 매우 어색해 하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일종인 당뇨병은 남자환자에서는 발기부전, 사정불능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정체감과 자기가치감, 자존심에 손상을 받게되며<Fairburn, McCulloch & Wu, 1982>⁶⁾, 만성적이고혈당이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건강인보다 발기부전과 사정불능, 그로 인한 심각한 성적 정체감과 자기가치감의 손상을 받으며, 환자의 50%는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근심, 걱정, 우울, 공포 등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발기부전을 가져온다<Whitehead etc, 1983>8).

당뇨병을 가진 여자환자의 성기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Jensen, 1981 : Unsain, Goodwin & Schuster, 1982>²⁹⁾³⁰⁾ Kolodney(1971)³¹⁾는 여자환자에서 신경적 문제와 퇴행성 혈관문제로 인하여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kronsnick & Podolsky(1981)⁹⁾는 혈당치가 높을 때 질감염과 성교통통이 있어 성적만족감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Ellenberg(1977)¹⁰⁾는 여자환자와 건강한 여자사이에서 오르가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도 보고하였다.

한편 Kolodney(1977)³¹⁾ 와 Unsain etc.(1982)³⁰⁾에 의하면 남자환자에서는 당뇨병 그 자체나 치료가 성적 친밀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ampbell & McCulloch(1979)에 의하면 여자환자는 당뇨병 및 임신가능성의 염려로 스트레스, 걱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적 친밀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는 남·녀 환자에서는 성교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인슐린의 반응 혹은 갑작스럽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저혈당에 대한 공포로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Campbell & McCulloch, 1979>³²⁾.

그밖에 당뇨병환자의 성기능부전의 원인이 알콜, 약물 및 질병과 관련이 없는 기타 다른 요인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Unsain etc, 1982>³¹⁾.

이상을 남녀 당뇨병 환자들의 성생활 장애의 요인들을 부분적이거나 살펴 보았다. 그러나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적절한 치료와 자가관리를 수행하면 질병의 조절이 가능하고 위험한 급·만성합병증을 예방, 관리할 수 있으므로<이, 1984>³²⁾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한 성생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난 성생활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성대도, 배우자의 지지, 성적 행위, 자아개념으로서의 신체상, 심리적인 면에서의 정서상태 및 연령,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과 만족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T시에 소재한 U대학병원 내과의실에서 식전, 식후 혈당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당뇨병환자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환자를 제외한 총 77명의 환자를 통계처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9월부터 11월까지이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보조원 2인과 함께 식전혈당 검사를 한 후 식후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식을 마치고 외래에서 2시간 기다리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작성능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설문지를 주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각 항목마다 면담을 통하여 기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S.F.I.)를 장(1989)³³⁾이 번역·수정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일반적인 배경10문항과 성생활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 6개와 성생활 만족 10문항을 합하여 26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732이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은 남·녀별, 총수로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해 성별, 연령, 당뇨병을 앓은 기간,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여부 등을 F-test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성적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즉,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환자가 56명(72.7%), 여자환자가 21명(27.3%)이었는데, 연령별로는 51-64세가 33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과반수 이상의 환자가 남자인 것은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자 중에서 여자환자보다 남자환자들이 성실히 응답함으로써 남자환자들의 누락율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1-64세가 33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뇨병이 보통 40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김등의(1992)³⁴⁾의 결과 같았다. 환자의 교육수준은 중·고졸이 46명(59.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중·고졸이 46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당 평균 월수입은 50만원부터 201만원 이상

까지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직업분포를 볼 때 상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3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도 15명(19.5%)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불교24명(31.2%), 기독교20명(26.0%), 천주교 8명(10.4%)순이며, 종교가 없는 환자도 21명(27.3%)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82.9%가 배우자와 한집에 기거하였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은 대부분의 환자가 1년 이상이었으며 10년 이상의 병력을 가진 환자도 24명(31.6%)이었다(표 1).

표1. 당뇨병환자의 일반적 특성 (n=77)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	56	72.7
	여	21	27.3
연령	31-40세	9	11.7
	41-50세	23	29.9
	51-64세	33	42.9
	65세 이상	12	15.6
교육수준 (환자)	무학	1	1.3
	국졸	12	15.6
	중·고졸	46	59.7
	대졸이상	18	23.4
교육수준 (배우자)	무학	3	3.9
	국졸	16	21.1
	중·고졸	46	60.5
	대졸이상	11	14.5
월수입	50만원미만	11	14.5
	50-100만원	17	22.4
	101-150만원	14	18.4
	151-200만원	17	22.4
직업	전문직	6	7.8
	공무원·회사원	17	22.1
	상업·사업	23	29.9
	농·어업	4	5.2
	생산직	1	1.3
	근로자	1	1.3
	주부	11	14.3
	무직	15	19.5

종교	기독교	20	26.0
	천주교	8	10.4
	불교	24	31.2
	무	21	27.3
	기타	4	5.2
배우자와의 기거여부	늘 한집에 기거 주말이나 주중에 몇일만 기거	63	82.9
	한달에 1-2회 집에 온다	9	11.8
	외국등 3개이상 장기출장	4	5.3
	6개월미만	0	0.0
	당뇨병을 앓은 기간	4	5.3
당뇨병을 앓은 기간	1년-3년미만	26	34.2
	3년-10년미만	19	25.0
	10년이상	24	31.6

2. 성욕구 상담희망 여부

당뇨병 환자들의 성욕구 에 대한 상담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이다가 37명(48.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자환자에서는 상담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8명(10.4%)으로 보통이다의 8명(10.4%)와 똑같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 성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2).

표2. 성욕구 상담희망 여부 (n=77)

	남	여	총
	실수(%)	실수(%)	실수(%)
항상 그렇다.	6(7.8)	1(1.3)	7(9.1)
대체로 그렇다.	8(10.4)	2(2.6)	10(13.0)
보통이다	29(37.7)	8(10.4)	37(48.1)
대체로 아니다.	6(7.8)	2(2.6)	8(10.4)
전혀 아니다.	7(9.1)	8(10.4)	15(19.5)

3. 현재의 질병 때문에 성생활이 걱정이 되는지 여부

현재의 질병 때문에 성생활이 걱정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보통이다

가 27명(35.1%)으로 가장 많이 답을 했으며, 항상 그렇다 10(13.0%), 대체로 그렇다도 18(23.4%)으로 걱정이 된다는 쪽에 답을 한사람이 많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환자들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의료팀들은 환자들의 질병조절과 함께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표 3).

표3. 질병으로 인한 성생활 걱정 여부 (n=77)

	남 실수(%)	여 실수(%)	총 실수(%)
항상 그렇다.	8(10.4)	2(2.6)	10(13.0)
대체로 그렇다.	12(15.6)	6(7.8)	18(23.4)
보통이다	20(26.0)	7(9.1)	27(35.1)
대체로 아니다.	6(7.8)	1(1.3)	7(9.1)
전혀 아니다.	10(13.0)	5(6.5)	15(19.5)

4. 현재의 질병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지 여부

현재의 질병 때문에 앞으로의 성생활이 걱정된다면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의사하고 상담하고 싶다가 49명(6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간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답은 남·녀 모두에서 2명(2.6%)에 불과했다. 이러한 답을 한 이유는 간호사들이 당뇨병환자들의 성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간호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으며, 또 환자들의 성문제에 대해 무관심과 자신감 결여, 어색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관계 영역은 그것의 개인성에 비추어 적절한 지시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Fitzpatrick, 1971>³⁵⁾, 간호사는 성상담과 함께 전문적인 간호중재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표 4).

표4. 성생활에 대한 원하는 상담 대상자 (n=77)

	남 실수(%)	여 실수(%)	총 실수(%)
의사	39(51.3)	10(13.2)	49(64.5)
간호사	2(2.6)	0(0.0)	2(2.6)
배우자	10(13.2)	7(9.2)	17(22.4)
친구	1(1.3)	2(2.6)	3(3.9)
기타	3(4.0)	2(2.6)	5(6.6)

5.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적욕구에 대한 관심 여부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성적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에서 전혀 아니다가 20명(26.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답한 사람은 19명(24.7%), 대체로 아니다는 18명(23.4%)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주로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받고, 성생활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5).

표5. 환자의 성적욕구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 여부 (n=77)

	남 실수(%)	여 실수(%)	총 실수(%)
항상 그렇다.	7(9.1)	2(2.6)	9(11.7)
대체로 그렇다.	9(11.7)	2(2.6)	11(14.3)
보통이다	17(22.1)	2(2.6)	19(24.7)
대체로 아니다.	11(14.3)	7(9.1)	18(23.4)
전혀 아니다.	12(15.6)	8(10.4)	20(26.0)

6.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 여부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가 36명(46.8%)으로 가장 많은 답이 나왔다(표 6).

표6.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 (n=77)

	남 실수(%)	여 실수(%)	총 실수(%)
행위자체가 불결하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가 유지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5(6.5) 13(16.9) 26(33.8) 6(7.8)	6(7.8) 1(1.3) 10(13.0) 2(2.6)	11(14.3) 14(18.2) 36(46.8) 8(10.4)

7. 성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방법 사용 여부
성생활을 위해 전문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지
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72명(9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현재 성적인 만족도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난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7).

표7. 성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방법 사용여
부 (n=77)

	남 실 수(%)	여 실 수(%)	총 실 수(%)
예	4(5.2)	1(1.3)	5(6.5)
아니오	52(67.5)	20(26.0)	72(93.5)

8. 일반적 특성에 따르는 성생활 만족정도

당뇨병환자의 성생활 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성별(P<0.1), 연령(P<0.1), 당뇨병을 앓은 기간
(P<0.05)과 성생활만족정도와 사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에서는 여자
보다 남자에서 성생활 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적으로 볼때도 41-50세의 그룹에 속하는

층이 성생활 만족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나(1973)³⁶⁾와 Landis(1975)³⁷⁾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서는 6개월에
서 1년 미만인 환자에서 성생활 만족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일 때 가장 낮아 대체로
병력이 길수록 성생활 만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의 병력이 길수록 육체적으로 나타나
는 문제 뿐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우울 등의 감정적 문제<Whitehead etc,
1983>³⁸⁾가 성생활에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
으로 사료된다(표 8.9.10).

표8. 성생활 만족점수 (n=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남	3.250	0.97
여	2.842	0.88
총평균	3.138	0.96

표9. 성별에 따르는 성생활 만족정도 (n=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F-value	P-value
남	2.842	2.842	2.80	0.0984
여	3.250	0.885		

표10. 연령에 따르는 성생활 만족정도 (n=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F-value	P-value
31-40세	3.10	0.787	2.69	0.0527
41-50세	3.591	0.630		
51-64세	2.930	0.948		
65세이상	2.875	1.375		

9.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에 따르는 성생
활 만족정도

당뇨병환자의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와
성생활 만족정도와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성욕구에 대한 상담을
대체로 희망하지 않는 그룹에서 성생활 만족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항상 성욕구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그룹에서 성생활 만족의 정도가 낮게 나
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성문제에 대해 무관심에
서 벗어나 적절한 성상담으로 만족한 성생활을 하
도록 간호중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표 1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

표11.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 따르는 성생활 만족정도 (n=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P
6개월 미만	3.833	0.230		
6개월-1년 미만	4.200	0.783		
1년-3년 미만	3.150	1.087	3.01	0.0236
3년-10년 미만	3.294	0.697		
10년 이상	2.741	0.928		

과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대전직할시에 있는 U대학 부속병원 내과외래에서 식전, 식후 혈당검사와 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한 당뇨병환자 7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S.F.I.)를 장(1989)이 번역·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F-test로 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들의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는 남·녀 모두 보통이다가 37명(48.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자환자에서는 상담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8명(10.4%)으로 보통이다의 8명(10.4%)와 똑같이 나타났다

2. 현재의 질병 때문에 성생활이 걱정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남·녀 모두 보통이다가 27명(35.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걱정이 된다면 누구와 상담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의사와 상담하고 싶다가 49명(6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간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남·녀 모두에서 2명(2.6%)에 불과했다.

4.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성적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전혀 아니다가 20명(26.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를 답한사람은 19명(24.7%), 대체로 아니다 18명(23.4%)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

5.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는 남·녀 모두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가 36명(46.8%)으로 가장 많은 답이 나왔다.

6. 성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72명(9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성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당뇨병을 앓은 기간,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여부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는 남자그룹이, 연령에서는 41-50세에 해당되는 그룹이,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서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그룹이, 성욕구에 대한 상담희망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그룹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보통으로 환자의 성적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한 그룹에서 성생활에 대해 만족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환자들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정도는 당뇨병으로 인해 성생활이 걱정이 된다는 쪽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환자에서 보다 남자환자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환자가 생각할 때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성적욕구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의 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의료인 중에서 만성질환 및 장애인의 성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과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문제에 대한 걱정을 상담하고 싶은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를 답한 사람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당뇨병환자들의 성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를 할 때에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환자들의 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감 결여, 어색함에서 벗어나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환자를 위해서는 상담자 역할과 또한 당뇨병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당뇨병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자, 장애자들의 성생활 만족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있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 당뇨병환자들의 성적 만족감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 3)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성욕구 정도와 그 충족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4) 당뇨병 환자에게 대한 간호사의 성에 대한 태도, 지식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수지, 강규숙 :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1987.
2. 신순현 : 당뇨병 환자 현황과 당뇨병 주간의 의미, 의학신문, 1995년 11월 6일자 게재.
3. 이광우, 손호영, 강성구, 방병기, 박두호, 민병석, 송혜향 : "한국인 18,201명에서 당뇨병과 관련 질환기에 관한 역학적 연구", 당뇨병, 8(1), 1984, 5-1.
4. Haber. J. Leach, A.M. : Comprehensive psychiatric nursing, McGraw-Hill Book Company, 1978.
5. Hanak, M. : Sexuality and disability. In M. Hanak, Rehabilitation Nursing for the Neurological Patient, ,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2, PP.93-107.

6. Fairburn, C. G., McCulloch, D. K., & Wu, F.C. : "The effects of diabetes on male sexual function", Clinics i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11, 1982, 749-767.

7. Karacan, I. : "Diagnosis of erectile impotence in diabetes mellitu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80, 92, 334-337.

8. Whitehead, E. D., Klyde, B. J., Zussman, S., Wayne, N., Shinbach, K. & Davis, D. : Male sexual dysfunction and diabetes mellitu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3, 1983, 1174-1179.

9. Kronsnick, A., & Podolsy, S. : "Diabetes and sexual dysfunction ; restoring normal ability", geriatrics, 1981, 36, 92-100.

10. Ellenberg, M. : " Sexual aspects of the female diabetic", Mt. Sinai Journal of Medicine, 44, 1977, 495-500.

11. Beutler, L. E. : Psychological evaluation ; Its iportance in treatment decision, In A. C. von Eschenbach & D. rodriguez. (Eds.), Sexual rehabilitation of the urologic cancer patient, Boston : Hall, 1981, 174-190.

12. 이강이 : "당뇨병환자의 성생활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86(6).

13. 조유향 : 노인간호, 서울;현문사. 1994.

14. Crooks, R. & K. Bauer : Our Sexuality. California , the Benjamin Cummings Publishing Company, 1980.

15. Saxton : Conflict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Individual marriage and The Family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nblishing Co., 1969.

16. White, S. E. and K. remay : " Sexuality and pregnancy ; a review", Arch. sex. Behav. 11(5), 1982, 429-44.

17. 노유자 :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18. Schenk, J., H. Pfrang, and A. rausche : "Personality traits versus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s the determinant of marital sexuality", Arch. Sex. Behav., 12(1), , 1983, 31-42.
19. 이홍식 : "기혼남녀의 성기능 장애 빈도", 대한의학협회지, 30(9), 1987, 1017-1023.
20. Garde, K. and I. Lunde : "Influence of social status on female sexual behavior ; a random sample study of 40-year-old Danish women", Scand. J. Prim. Health Dare, 2(1), , 1984, 2-3.
21. Olsen, E. V. : " Immobility ; effects of psychosocial equilibrium", A. J. N., April, , 1967, 794.
22. Roberts, S. L. :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through the life span, Prentic Hall, 1978.
23. McCloskey, J. C. :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Nursing, 76, 1976, 68-72.
24. Rubin, I. : Sexual life after sixty. New York : Basic Books Inc., 1965.
25. Atharisation, R. & P. Shaver : "Correlates of heterosexuals relations to pornography", J. sex Res., 7, 1971, 298-311.
26. Mosby, D. L. and I. greenberg : "Female affective responses to reading erotic literature", J. Consult Clin. Psychol., 33, 1969, 472-77.
27. Derogatis, L. R. :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1), 1980, 113-131.
28. Zilbergeld, B. : Sex and serious illness. In C.A. garfield(Ed.), Stress and survival : the emotional realities of life-threatening illness, St. Louis : Mosby, 1979, 236-242.
29. Jensen, S. B. : " Diabetic sexual dysfunction : A comparatives study of 160 insulin treated diabetic men and women and an age-matched control group",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0, 1981, 493-504.
30. Unsain, I. C., Goodwin, M. H., & Schuster, E. : "Diabetes and sexual functioning",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 1982, 387-393.
31. Kolodny, R. C. : "Sexual dysfunction in diabetic females", Diabetes, 20, 1971, 557-559.
32. Campbell, I. W., & McCulloch, D. K. : "Marital problems in diabetics", Practioner, 222, 1979, 343-347.
33. 장순복 :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원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34. 김영숙 외 8인 : 성인간호학, 서울 : 수문사, 1992.
35. Fitzpatrick, E. reeder, S. R. : Maternity Nursing, 12th Ed.,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and Toronto, 1971, 159-160.
36. 나종구, 이재현 : "자궁적출술을 받은 부인의 수술 전후의 주소", 카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24, 1973, 517-526.
37. Landis, P. H. :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Jersey , Prentis -Hall, 1975.